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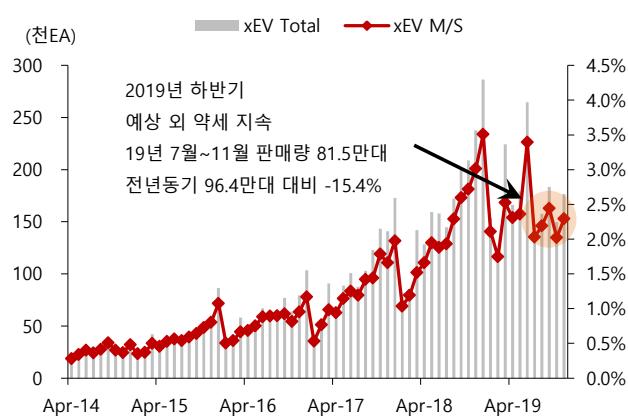
energy snapshot

Analyst. 손지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의외의 약세를 보이는 하반기 세계 전기차 판매

- ▶ 2019년 7월~11월 판매량 81.5만대로서 전년동기대비 -15.4% 감소. 중국/미국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원인은 정책 센티멘트 약세로 해석됨. 내년 판매 판도가 전기차 시장 성장 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해질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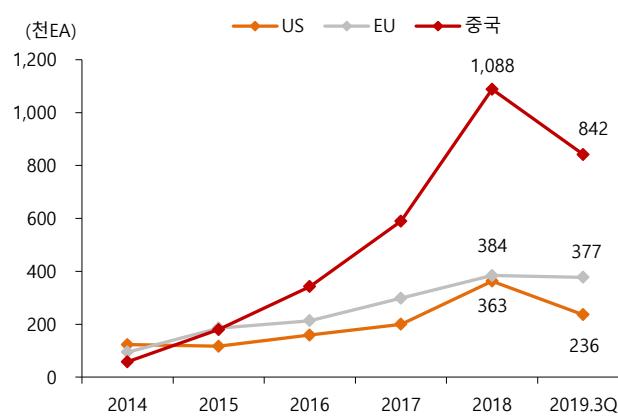
올 하반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



자료 : EVsales, SK증권

- 몇 년 동안 놀라운 성장세를 지속해 왔던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시장이 2019년 하반기 예상 외의 약세를 지속 중입니다
- 7월~11월 판매량은 81.5만대로 발표가 나왔는데요. 이는 전년동기의 96.4만대 대비 -15.4%의 감소세입니다
- 7월~11월 기간 동안 전 세계 신차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으로 보면 2.2%로 산출되는데, 지난 해 말 3.5%까지 도달했던 것 대비로 본다면 실망스러운 수치 임에는 분명하죠
- 통상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왔는데, 올 11월은 17.7만대(신차판매비중 2.3%)로서 전년동월 23.8만대 대비 -25.7%의 큰 폭 감소입니다
- 무엇이 문제일까요?

중국과 미국 모두 정책 이슈로 판매 약세 상황임



자료 : EVsales, InsideEV, SK증권

- 일단 국가별 판매량을 보면 중국의 약세가 눈에 들어옵니다
- 올 3Q까지 누적 84.2만대 판매인데, 이 추세라면 2018년 연간 판매량 108.8만대 대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
- 중국의 약세는 올 해 보조금을 기준대비 50% 삭감한 영향이 크고, 내년에는 전면폐지 가능성도 나와서 센티멘트가 굳어 있는 상황이죠. 태양광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 같습니다
- 미국 역시 올 3Q 누적 23.6만대로서 전년 36.3만대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
- 미국은 전체 판매 중 절반이 Tesla Model 3인데,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그 외에는 잘 안 팔립니다. Model S는 전년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구요. 규제약화 가능성이 확실히 악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
- 결국 양대 축이었던 中/美의 정책약세가 주 원인입니다. 이렇게 되면 내년 판매 판도가 전기차 성장주제에서 매우 중요해지겠네요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협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